

벤투호, 중동 '침대축구' 넘어야 월드컵 본선 보인다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최종예선 조 추첨 결과 중동 모래바람에 갇힌 벤투호가 침대축구를 넘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1일 말레이시아 쿠

카타르월드컵 최종예선서 중동 5팀과 한 조 선제골로 주도권 잡아야... 초반 적극 공세

알라룸푸르 아시아축구연맹(AFC) 하우스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조 추첨에서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2년 포트에 속했던 한국은 중동 5개국과 경쟁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따야 한다. 그동안 중동에 약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 축구에겐 쉽지 않은 과제다. 현지 날씨와 시차, 장거리 이동뿐 아니라 중동 특유의 '침대축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지난달 국내에서 열린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에서도 레바논과 최종전(2-1 승)에서 상대의 고의적인 시간 끌기에 말려 어려움을 겪었다. 레바논 선수들은 작은 몸싸움에도 쉽게 그라운드에서 쓰러져 일어설 수 없었다. 한국 선수들이 주심에 항의했지만, 아프다며 쓰러진 선수를 억지로 일으켜 세울 수 없어 주심도 난감한 표정이었다. 레바논의 일명 침대축구는 한국을 상대로 효과를 봤다. 선제골을 터트리

며 한국의 허를 찔렀고, 끝까지 한국을 당황하게 했다. 손흥민의 페널티킥 득점과 상대 자책골이 아니었다면, 역전을 장담할 수 없었다. 중동 침대축구에 고전했던 벤투 감독도 경기 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최종예선에서도 오늘과 같은 시간 지연이 나온다면 아시아 축구 발전에 좋지 않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간 끌기 작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심판뿐"이라며 중동 팀들의 침대축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고 인정했다. 해법은 단 하나다. 이른 시간 선제골로 주도권을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인 공세를

펼쳐야 하며, 다양한 공격 전술을 준비해야 한다.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는 김학범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도 한국이 중동 팀들과의 최종예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침대축구를 이겨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중동팀들은 정말 짜증 나는 축구를 한다. 그런 부분을 잘 이겨내야 한다. 레바논이 그렇지 않았나"면서 "중동팀과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가 침대축구 때문이다. 그걸 잘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 오는 9월2일 이라크와 홈 경기를 시작으로 월드컵 최종예선을 시작해 내년 3월29일 UAE 원정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친다. 뉴스

전남드래곤즈, 오늘 홈경기 '직장인 명함 이벤트'

당첨 직장인 소속 회사에 식사권 형태 회식비 제공

프로축구구단 전남드래곤즈는 5일 오후 7시 30분 열리는 광양 홈경기에서 경기장을 방문한 직장인들의 명함을 추첨해 회식비를 제공하는 명함 이벤트를 개최한다. 4일 전남드래곤즈구단에 따르면 5일 광양에서 하나원큐 K리그2 2021 19R 경남FC와의 홈경기 관중

들을 위해 명함 이벤트를 기획했다. 이벤트는 전남드래곤즈와 DRAGONS FS가 함께 할 예정이다. DRAGONS FS는 드래곤즈 프렌드 샵의 약자로 전남드래곤즈와 함께 하는 소액광고사들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명함 이벤트로 제공되는 직장인

회식 메뉴는 장어구이, 삼계탕, 전복물회 등 다양한 여름 보양식이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입장 시 이벤트함에 자신의 명함을 넣으면 된다. 본인의 명함만 투입해야 하며, 타인 명함 투입 후 당첨 시에는 무효 처리된다. 전반전 킥오프 시까지 모인 명함 중 5명 이상의 명함이 나온 회사를 추려 전반 종료 후 하프타임 장내

아나운서 '마리오'가 추첨 및 발표한다. 전남드래곤즈는 추첨에 의해 선정된 3명이 소속된 회사에 30만 원 상당의 식사권 형태 회식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예매는 전남드래곤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연맹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현장 표 구매는 제한된다. 기업권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예매가 필수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프로 데뷔 14년차' 김해림, 3년만에 우승 통산 7승 달성... "10승 도전"

프로 데뷔 14년차 관록의 김해림(32·삼천리)이 3년만의 한국여자자프로골프(K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림은 4일 강원도 용평 비치힐 골프클럽(파72·6434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맥콜·모나파크 오픈 with SBS Golf 마지막라운드에서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하는 이가영(22·NH투자증권)과 연장까지 가는 팽팽한 승부 끝에 감격의 우승을 차지했다.

김해림은 경기후 "3년만에 우승을 도전하게 돼 부담감을 안고 경기에 임했고 비에도 약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경기 내내 되뇌었던 것 같다"며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일본 투에 진출했을 때 힘들었던 것, 이게 부상으로 백스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팠던 기억 그리고 오랫동안 우승한 것이

전남과학대학교 볼링팀 이민재·김동현, 청소년 국가대표 됐다



전남과학대학교 볼링팀 이민재·김동현이 청소년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전남도체육회는 이민재와 김동현이 2021년도 청소년 국가대표로 뽑혔다고 4일 밝혔다. 이민재와 김동현은 인천 피에스타 아시아드볼링경기장에서 열린 청소년대표 선발전에 참가했다. 60명이 나온 선발전에서 1위부터 8위까지 청소년 국가대표, 9위부터 14위까지는 상

비군으로 선발됐다. 김동현은 이 대회에서 총점 1만235로 평균 213.2점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투핸드 선수인 이민재는 총점 1만32로 최종 7위로 대회를 마쳐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전남과학대 볼링팀 강영경 지도자는 "김동현은 1학년이지만 묵직하게 투구를 하면서 기복없는 꾸준한 플레이가 장점이고 이민재는 흔하지 않은 투핸드 선수지만 탁월한 기량으로 좋은 성적을 거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전남도청 스쿼시, 전국대회 단체전 금메달

양연수 개인전 은메달...김영재 감독 "좋은 성적으로 결실"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5회 회장배 전국 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4일 밝혔다. 박은욱·양연수·이영욱이 출전한 전남도청은 첫 경기인 16강에서 충남을 2대 1로 꺾고 8강에 올랐다. 이어 8강전에서 경남을 3대 0으로 완파하고 준결승에 진출했고 전북마저 2대 1로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

결승에서 대구를 만난 전남도청은 2대 1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개인전에 출전한 전남도청의 양연수는 김가혜(광주시청), 김아현(전북), 이지현(대구)을 물리치고 결승 무대에 나섰지만 경남의 허민경에게 패하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도청 김영재 감독은 "단체전 준비를 많이 했는데 좋은 성적으로 결실을 맺었다"며 "다음 대회도 준비를 잘 해 성적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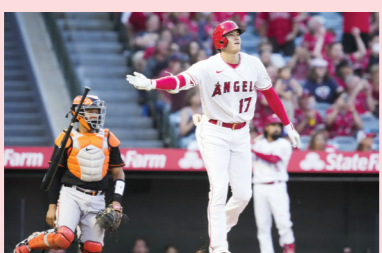
전남도체육회는 전남도청 스쿼시팀이 경북 김천에서 열린 제5회 회장배 전국 실업스쿼시 선수권대회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4일 밝혔다. 왼쪽부터 김영재 감독, 양연수, 박은욱, 이영욱. (사진=전남도체육회 제공).

KLPGA 맥콜·모나파크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 "부담감 있었는데 '잘 할 수 있다'고 되내이며 경기"

김해림은 마지막 라운드에서 8타를 줄이며 무섭게 치고 나간 이가영을 상대로 단독 선두와 공동 선두를 번갈아가며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쳤다. 특히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하며 한 타 차 앞선 채 경기를 끝낸 이가영에 뒤이어 김해림은 과감한 버디 버팅을 성공시키며 극적으로 연장 승부로 끌고 갔다. 18번홀에서 재개된 연장전에서 이가영이 어렵게 내리막 버디 퍼트를 놓치지, 김해림은 1.2m 거리의 짧은 버디 버팅을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지었다. 우승상금 1억4400만원의 주인공이 된 김해림은 이로써 지난 2018년 5월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 이후 3년 2개월만에 우승이자 통산 7승을 거두게 됐다. 김해림은 첫날부터 마지막 라운드까지 단독 선두를 놓치지 않으면서 우승에 끝인하는 '와이어 투 와이어' 승리를 차지했다. 특히 1라운드에서 캐디없는 플레이로 7언더파를 몰아치며 단독 선두에 올라 화제를 모았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진행된 2라운드 3라운드 경기에서는 플레이에 도움은 받지 않는 하우스 캐디와 경기

한번에 몰려왔다"며 방송 인터뷰에서 울먹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김해림은 "첫 라운드 전날 꿈을 꿨는데 금이 가득한 곳에 들어가서 제가 다 갖는 꿈을 꿨다. 첫날 잘 쳐서 설렘했는데 우승까지 하게 됐다"며 우승하면 좋은 꿈이 무슨 내용이었는지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지켰다. 김해림은 "통산 10승에 도전하는 것이 목표"라며 "캐디의 도움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다. 전문 캐디를 쓸 지 여부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8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이가영은 이번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눈앞에 두고 연장 승부 끝에 어렵게 준우승에 머물렀으며, 지난해 신인왕 유해란(20·SK네트웍스)이 3타 차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는 '대세' 박민지(23·NH투자증권)와 '디펜딩 챔피언' 김민선(26·한국토지신탁), 2019년 우승자 최혜진(22·롯데) 등 강자들이 줄지어 컷 탈락하기도 했다. 뉴스

오타니를 누가 막을까 MVP 가상 투표 압도적 1위



투타 겸업을 하며 미국 메이저리그를 휩쓸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26·LA 에인절스)가 가상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1위에 올랐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닷컴은 4일(한국시간) 전문가 패널 28명을 대상으로한 양대리그 가상 MVP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투수 오타니'도 데뷔 첫 시즌인 2018년 이후 3년 만에 꾸준히 등판하며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매체는 "투타 겸업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오타니는 30홈런으로 홈런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장타율도 0.705로 선두에 올라 있다. 투수로 선발 등판한 12경기

에 평균자책점 3.60을 기록하며 60이닝 동안 탈삼진 83개를 작성했다"며 "오타니는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메리칸리그 MVP 2위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차지했다. 게레로 주니어는 5장의 1위표를 얻었다. 게레로 주니어는 타율 0.338, 27홈런 69타점으로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하고 있다. 카를로스 코레아(휴스턴 에스트로스), 랜더 보가츠(보스턴 레드삭스), 맷 올슨(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3-5위로 뒤를 이었다.

서 평균자책점 3.60을 기록하며 60이닝 동안 탈삼진 83개를 작성했다"며 "오타니는 역사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에메리칸리그 MVP 2위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차지했다. 게레로 주니어는 5장의 1위표를 얻었다. 게레로 주니어는 타율 0.338, 27홈런 69타점으로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하고 있다. 카를로스 코레아(휴스턴 에스트로스), 랜더 보가츠(보스턴 레드삭스), 맷 올슨(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이 3-5위로 뒤를 이었다.